

완도군, 해양관광거점도시 도약 발판 마련

국립난대수목원·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완도군이 해양, 문화, 역사 등 고유문화를 활용해 '더 멋진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향해 나선다.

완도군에 따르면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 (3456ha)를 차지하며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군은 국비 1475억원을 투입해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한다.

완도수목원 400ha 부지에 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보전지구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과 모노레일 등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 27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단번에 통과해 조기 조성에 정진호가 켜졌다.

수목원이 조성되면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대 수산 인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청정바다를 보유하고 있는 완도군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이 들어선다.

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인근 4만 3000㎡ 규모

에 국비 1245억원을 투입해 전시, 연구, 교육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4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심의를 거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2024년부터 건축 등 시설 공사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해양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 법화사지 복원 재건 등 '장보고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급 덕동리 일원에 190억원을 투입해 삼도수군 통제영 및 봉수대 복원, 역사 공원길 등을 조성하는 '이순신 장군 역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주민 주도형 '섬 관광청'을 운영하고, '완도 섬 비엔날레'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건설' 및 '다도해 해상 케이블카 건설' 등의 사업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국립 해양수산물박물관 조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관광 사업들이 완료되면 체도권은 체험관광, 동부권은 힐링관광, 서부권은 문화관광, 청산권은 생태관광으로 권역별 테마가 있는 관광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가 가진 비교우위의 해양-자

연 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5백만 관광객이 찾는 완도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특히 군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군이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왕새우' 상표 등록

친환경 생산자 사용 가능

신안군은 신안 왕새우에 대한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안 왕새우는 전국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연간 550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신안군의 대표 수산물이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친환경 새우양식 생산자들이 '신안 왕새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리를 확보했다.

또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소득향상 및 경영 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박우훈 신안군수는 "신안에서 생산되는 왕새우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농촌서도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

해남군, 개장 14개월만에 매출 30억...벤치마킹 잇따라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사진)이 개장 14개월만에 매출 30억원을 달성했다.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해 10월 개장, 인근에 배후도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농가의 판로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개장 이후 12만명이 가까운 군민이 이용했으며 개장 당시 20여 생산·임업농가가 50여 농가까지 확대되면서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로컬푸드 매장에는 매일 오전 당일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으며,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농가소득으로 직접 지급하면서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연중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종하우스 보급과 생산자 조직화, 출하품목 확대 등 푸드플랜 생산

자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소농위주의 다품목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성장세에 힘입어 해남군은 전국 15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먹거리 활성화 평가 결과 2022년도 지역먹거리지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먹거리 지수 C등급에서 올해에는 A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로컬푸드 불모지라 불리던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에서도 지역먹거리 정책이 잘 만들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활발히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명성이 알려지며 전국 각지에서 해남을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합천, 부산, 장성, 나주, 진도 등에서 운영 노후를 배우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왔으며 방문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지도분야 종합평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잡곡 신품종 재배 시범단지(16ha) 조성 후 잡곡 브랜드 가치 향상 기여 ▲과학영농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 등을 활발히 운영한 공을 인정 받았다.

또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아열대 작목 육성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진도군과 전라남도의 농업·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진도군 농업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현장 맞춤형 기술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 공유로 현장 중심 농촌진흥사업 성과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시상, 농촌진흥기관의 사기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최우수상 수상

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 유소년승마단 박의진 학생, 상금 전액 기탁

영광군은 영광군 유소년승마단 박의진(영광여중 1학년·왼쪽 두번째) 양이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국 승마대회 우승 상금 100만원 전액을 영광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의진 양은 2017년 영광군 유소년승마단 창단 이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각종 승마대회에 영광군을 대표하는 선수로 참가하여 통산 13번째 매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5일간 전라북

도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개최된 '2022년 익산시 전국 승마대회'로 장애물(50cm)부문에서 1등을 수상했다.

또 이번 수상과 더불어 지난 3월 '전남도지사배 유소년 승마대회'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박의진 학생은 영광군을 전국에 알린 '2022년 영광체육을 빛낸 TOP 10'에도 선정되었다.

박의진 양은 "부족하지만 이번 기부를 통해 더욱 많은 친구들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